



안성
안성맞춤도시



하이닉스
가 함께합니다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Symposium



City of Masters
안성
안성맞춤도시



하이닉스

wi 함께일하는재단

목차

주요일정표 05

사업 성과발표 06

김유동 (재)함께일하는재단 팀장

참가자 소감발표 16

최연 이주민 시데이터플래닛 참가자 대표

정책소개 22

법무부

- 한국 이민정책 방향 소개

특별강연 38

수잔 샤키야

- 문화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이주민 일자리와 현황)

연구과제 발표 46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 AI 시대 이주민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 회복력 연구:

안성지역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Symposium





주요일정표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 ~ 13:10	등록	입장 및 참가자 등록
13:10 ~ 13:25	개회	개회 및 축사 [개회사] SK하이닉스 [축사] 안성시/안성시의회/법무부
13:25 ~ 13:30	영상 상영	사업성과 오프닝 영상
13:30 ~ 13:40	성과공유	[사업 성과발표] 김유동 (재)함께일하는재단 팀장
13:40 ~ 13:45	참가자 소감	[참가자 소감발표] 최연 이주민 AI 데이터플랫폼 참가자 대표
13:45 ~ 14:00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VIP 및 사업 참가자 사진 촬영
세션1 특별강연 및 정책소개 - 이주민의 국내 사회적응 및 일자리 동향		
14:00 ~ 14:10	정책소개	[정책소개] 법무부 - 한국 이민정책 방향 소개
14:10 ~ 14:35	특별강연	[특별강연] 수잔 샤키야 - 문화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이주민 일자리와 현황)
14:35 ~ 14:40 휴식		
세션2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AI시대 이주민 일자리 지원과 회복력 연구		
14:40 ~ 14:55	연구과제 발표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주제] AI 시대 이주민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 회복력 연구: 안성지역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14:55 ~ 15:20	토론	[좌장]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례 북카페 보물섬 대표
15:20 ~ 15:30		기념촬영 및 폐회



사업 성과발표



김유동

(재)함께일하는재단 팀장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Symposium 성과공유

2025. 11. 25.(화)
안성시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wi 함께일하는재단

01  **사업
소개**

02  **사업
진행 성과**

wi 함께일하는재단

01 사업 소개

wi 함께일하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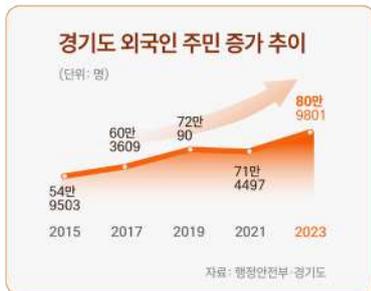
01 사업 소개

사업 추진 배경

wi 함께일하는재단

증가하는 국내 이민자 현황

- 국내 등록 이민자 수 연평균 **6% 증가**
- 국내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 포함 **265만명** (전체 인구의 4.9% / 5%부터 다문화 사회)
- 경기도의 경우 관내 거주 외국인수가 **80만 9801명(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한국은 노동력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이주민 활용 필요성 증가**

01
사업소개

사업 추진 배경

wi 함께일하는재단

이주민 일자리 현황

-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는 단순반복, 장시간 노동 직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이주민 특성을 반영한 재택근무 일자리

- 언어, 문화 등의 이유로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한 이주민의 소득 불균형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
- 4차 산업 미래 유망 직종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하며 이주민 특성을 반영한 재택근무 가능한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발굴**하여 한국 사회 적응 및 구성원 역할 부여 필요성 대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문인력	43,258	45,143	50,781	72,146	89,928
단순기능인력	409,039	361,526	398,621	450,425	477,033

(단위: 명)



- 1 취업자격 외국인의 84%가 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근로) 중 (2024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 기준)
- 2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는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비전문분야 (단순 노동 등) 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 (34.2%)로 매우 높음
- 3 이민자의 담당업무 직무 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28.7%)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참고자료: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이거제의 현황,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1
사업소개

사업 추진 배경

wi 함께일하는재단

4차 산업 미래 유망 직종 발굴 및 연계

- AI 관련 고부가가치 사업의 기초 DB를 확보 할 수 있는 데이터라벨링의 기업 수요 증가
- 라벨링된 데이터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설명(주석)은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여 사람이 직접 작업이 필요함

재택근무 가능

(단시간근로 및 근로시간 선택 가능)

IT 관련 직무
(이주민 선호 직종)

쉬운 직무 난이도
(직업 접근성 유리)

데이터 어노테이터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 수행으로 재택, 원격근무 비중이 높음
디지털 직군 중 고용시장 접근이 유리한 '포용적 디지털 일자리'로 각광
숙련자의 경우 데이터 큐레이터 및 QA(품질)검수 등 관리자급 성장 가능

사업 추진 배경

데이터 어노테이터란?

- 어노테이터(Annotator)는 데이터에 주석(Annotation)을 다는 사람을 의미
- AI(인공지능)를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설명을 붙이는 작업자



이미지 라벨링

고양이 사진에 “고양이”라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태그 달기

음성인식 라벨링

녹음된 음성을 듣고 정확한 텍스트로 바꾸기

자연어 처리 분류

뉴스 기사에서 긍정/부정/중립 감정 태그 달기

비디오 분석

교통 CCTV에서 차량 / 사람을 구분하여 프레임별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태그 달기

의료데이터 주석

CT, MRI, X레이 이미지에서 병변 위치 표시하기



사업 추진 배경

데이터 어노테이터의 필요성

- AI(인공지능)는 가공되지 않은 단순 데이터를 줄 경우 분석, 예측이 어려움
-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라벨링 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구별 및 예측할 수 있는 고차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01
사업소개

이주민 AI 데이터플래닛 (사업 참여 기관)

wi 함께일하는재단

사업참여 : 3개 기관



- 공공(지자체) + 민간(기업) + 시민사회(NGO)의 다자간 협력 사업
- 상호 역량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기반 조성
-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확보를 통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조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 가능

* 멀티스테이크홀더 : 공공, 민간,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교육진행 : 2개 기관



사업연구 : 1개 기관



02 사업 진행 성과

wi 함께일하는재단

사업 진행 과정

WI 함께일하는재단

사업 진행 개요



참가자 모집

WI 함께일하는재단

현장 모집설명회



1차 모집설명회

- 장소 : 은하수교육원
- 일정 : 25년 3월 16일(일)
- 참석인원 : 18명



2차 모집설명회

- 장소 : 안성시 가족센터
- 일정 : 25년 3월 18일(화)
- 참석인원 : 20명



안성시 이주민 서포터즈리더 자문회의

- 장소 : 은하수교육원
- 일정 : 25년 3월 30일(일)
- 참석인원 : 3명

온라인 모집설명회



- 일정 : 25년 6월 19일(목), 25년 6월 25일(수) (양일간)
- 방법 : Zoom 온라인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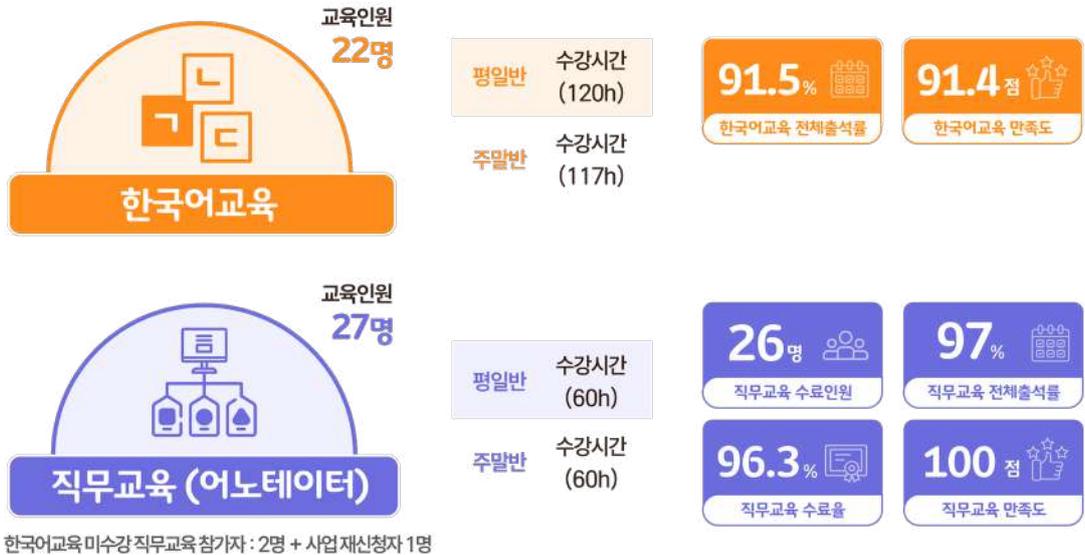
안성시 거주 이주민 현황 파악 및 질의응답, 자문을 통한 선호 교육 방식(평일/주말반 분반) 확인



02
사업
진행 성과

한국어교육 및 직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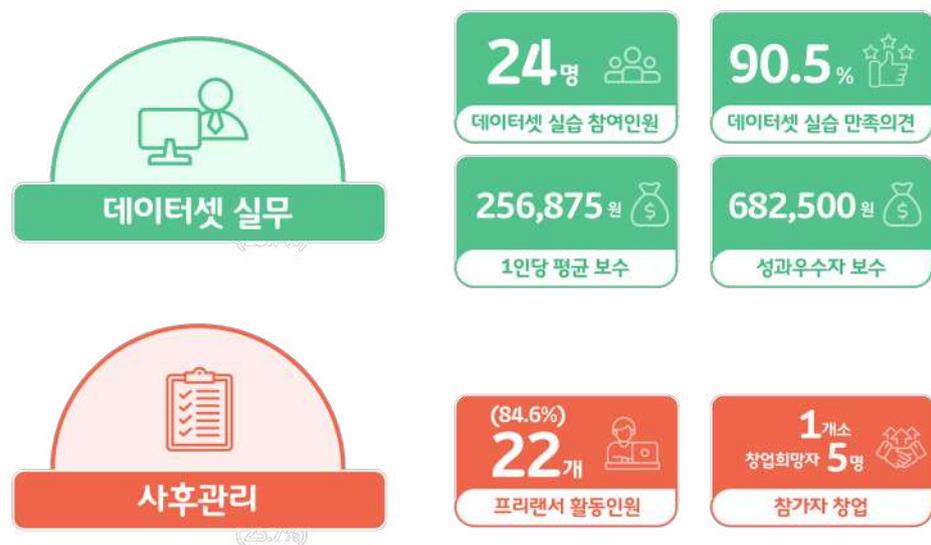
wfi 함께일하는재단



02
사업
진행 성과

이주민 AI 데이터플래닛 (데이터셋 실습 성과)

wfi 함께일하는재단



감사합니다.

WI 함께일하는재단



참가자 소감발표



최연

이주민 AI 데이터플래닛 참가자 대표



나의 디지털 전환 이야기

최연

이주민 AI 데이터플랫폼 참가자 대표

저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



일과 양육의 병행

이주민 AI 데이터플래닛 사업을 만나다

AI의 대홍수, “나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시작은 단순한 궁금증



다양한 디지털 교육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경험

멀게만 느껴졌던 Ai,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내 곁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창업과, 이주민 '커뮤니티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창업계획



동료들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리더'

감사의 말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 감사합니다.





[정책소개]

한국 이민정책 방향 소개



법무부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1. 외국인정책? vs 이민정책?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 사실상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과 동일한 의미”

용어상 '이민정책'으로 전환

- 노무현 정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시 '외국인정책' 용어 당시 국민 여론? 이민 찬성 vs 이민 반대
- 2020년대 :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
⇒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 + 국가의 미래 정책방향 제시 필요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1. 외국인정책? vs 이민정책?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 사실상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과 동일한 의미”

용어상 ‘**이민정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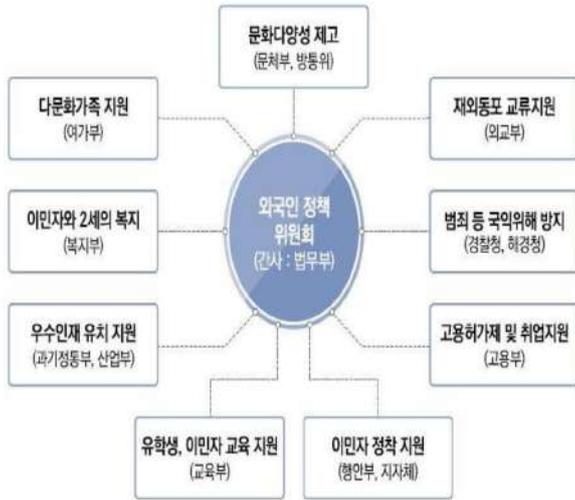
- 노무현 정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시 ‘**외국인정책**’ 용어 당시 국민 여론? 이민 찬성 vs 이민 반대
- 2020년대 :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
⇒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 + 국가의 미래 정책방향 제시 필요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2. 정책 추진 체계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3. 수립 근거 및 절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연혁 및 평가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기간	2008년 ~ 2012년	2013년 ~ 2017년	2018년 ~ 2022년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목표	① 적극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④ 외국인 인권 옹호	①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②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③ [인권] 차별방지과 문화다양성 존중 ④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⑤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① [개방]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② [통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③ [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④ [인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⑤ [협력]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특징	■ [통합] 과제 중심 기본계획 수립 ■ 난민법 제정(12.2., 13.7. 시행)	■ 시행계획 과제 수(평균 306개) 증가 ■ 정책목표에 [협력] 추가(5개 영역) ■ [인권과제] 비중증가(4.1%→28%)	■ 5개 정책목표 체계 유지 ■ [안전]이 [인권] 영역보다 우선 ■ 코로나19로 계획 달성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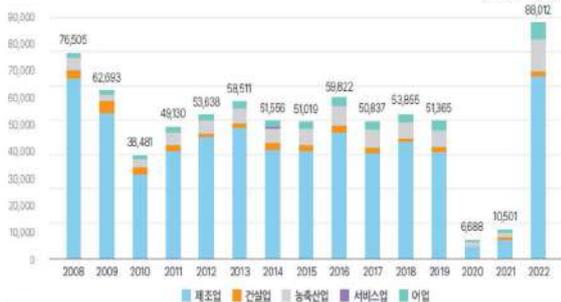
6

5. 지난 15년간(1차~3차)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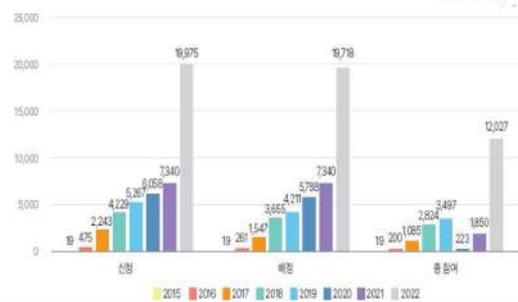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대응

-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및 결정방식 등 제도 개선
-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17 시행)으로 농어촌 구인난 해소

<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도입 현황 >
(단위: 명)



< 연도별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15~'22) >
(단위: 명)



7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5. 지난 15년간(1차~3차) 주요 성과

■ 국경관리 강화 및 출입국심사 편의 증진

-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도입('08 시행)
- 탑승자 사전확인으로 부적격자 탑승 차단('17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K-ETA)로 입국절차 편리성과 국경안전 확보('21 시행)

<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 현황 >

(단위: 천명)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자동심사대 이용 비율	11.4%	14.4%	21.6%	34.3%	37.1%	51.5%
자동심사대 이용자 수	5,735	8,848	17,269	30,467	5,460	9,992
전체 출입국자 수	50,332	61,652	79,988	88,908	14,702	19,414

< 입국 부적격 승객 탑승 차단 현황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3,226	19,055	21,554	46,256	32,335	116,443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5. 지난 15년간(1차~3차) 주요 성과

■ 이민자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강화

-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09 도입)
-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시행('15 시행)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09~'22) >

(단위: 명)



<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수('15~'22) >

(단위: 명, 회)

구분	2015	2016	2017	2018
참여자	47,845	60,358	91,938	79,656
운영	1,840	2,245	2,735	2,736
구분	2019	2020	2021	2022
참여자	51,354	6,620	7,241	29,521
운영	2,116	638	802	1,745

5. 지난 15년간(1차~3차)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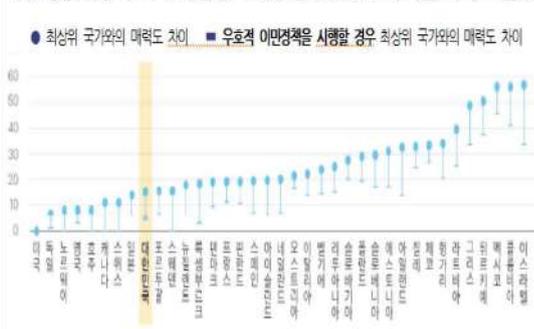
■ 유학생 양적 확대 (Study Korea Project)

- 학위과정(非학위 제외) 유학생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여
- 유학생 매력도 향상(37개국 중 9위, OECD 2023)

< 유학생 수 증감 ('10~'22) >



< 유학생대상 우호적이민정책 시행 전후 OECD 국가별 매력도 변화 >



5. 지난 15년간(1차~3차) 주요 성과

■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 난민법 제정('13) 및 난민 심사 조직·인력 신설
- 난민수용 방식 다각화 - 재정착 난민 제도 시행('15 시범 실시)
- 아프간 특별기여자, 우크라이나 국민 특별체류조치('21~'22)

■ 한국 계속 체류 희망자 비율 증가

- 체류기간 만료 이후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비율 증가
 - ※ 84.3% ('12) → 86.1% ('17) → 88.6% ('22)
- 영주자격자 수 급증
 - ※ 15년 간 10배 이상 증가 16,567명 ('08) → 176,107명 ('22)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6.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

■ 숙련·전문 이민자 정주 유도 필요

한계

- 단기·非숙련인력 중심
- 전문인력 수 증가 정체
- 경제이민 경로 영주자 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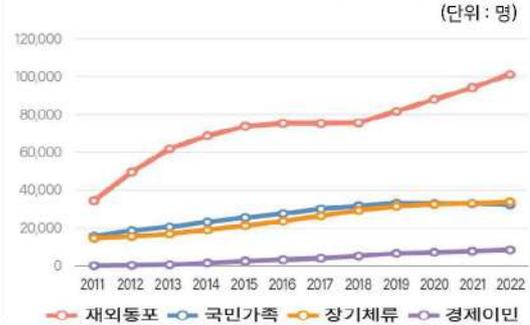
개선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인력 편입 유도
- 국내 정주 경로 확대
- 영주자격 경로 개편

< 전문인력 수 변화('08~'22) >



< 영주자격자 유형별 추이('11~'22) >



I.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6.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

■ 상호문화 이해도 향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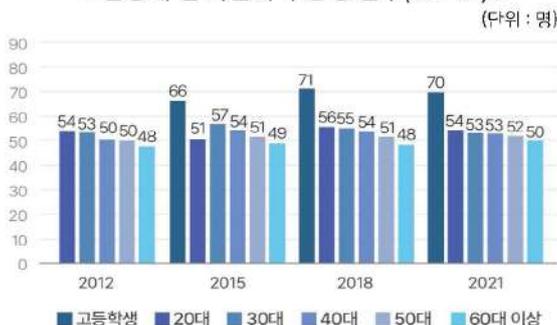
한계

- 외국인 교육에 집중된 통합 정책
- 다문화 수용성 미진
- 인종·국적에 대한 편견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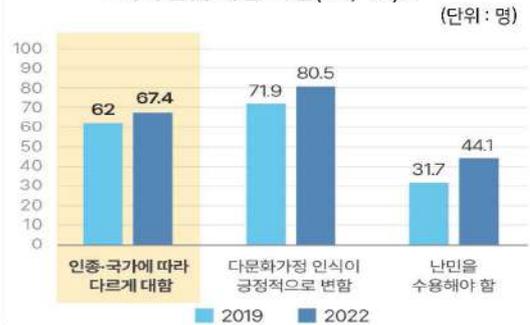
개선 필요

-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 정책 도입
- 인터넷, 대중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

< 연령대 별 다문화 수용성 점수('12~'21) >



< 외국인에 대한 의견('19, '22) >



6.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

■ 중앙 및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필요

한계

- 중앙부처 주도 이민정책 추진
- 부처별 단편적·분절적 정책 시행

개선 필요

- 지역 수요 반영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채널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필요

이민청 설립 필요도

-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 “필요하다” 65%
 - “필요하지 않다” 27%로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출처: 전국지표조사(NBS), 2022.12.



14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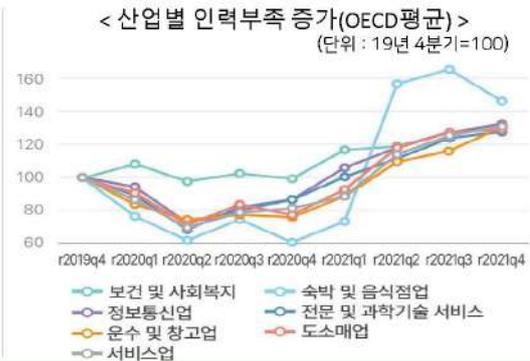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1. 국제 이민 환경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 여행객 증가와 이민자 유입으로 국제이동의 반등
- 필수인력 확보 노력
 - 제조, 농업, 보건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의 취업비자 제도 개선, 영주권 접근성 강화 등 이민자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1. 국제 이민 환경

■ 그린·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인력 유치 경쟁

- 디지털 이민행정 활용 확대 추세
 - 비자절차 디지털화(EU), 영주권 신청절차 온라인화(캐나다)
- 산업·고용 구조 개편
 - 인공지능,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신기술 인재 영입 경쟁

■ 이민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반복과 정치 쟁점화

- 이민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문화적 차별로 자국민과의 갈등 반복
 - ※ 프랑스 방리유 폭동('05), 이민자 2세 청소년 사망으로 인한 폭동('23)
- '반(反) 이민' 을 표방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 득세(유럽 등)
 - 난민 및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과 이에 대한 반감이 주요 원인

1. 국제 이민 환경

■ 아시아 역내 이민 활성화

- 역내 교류 증대
 - 세계 이민자의 41%가 아시아 출신, 이 중 60%가 아시아 내 다른 국가로 이출
- 동아시아 4국간 이민자 유치 경쟁 (한국 외 3개국 모두 차관급 전담부서 설치)

일본	중국	대만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19 신설)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18 신설)	내정부 이민서('07 신설, '15 개편)

■ 대한민국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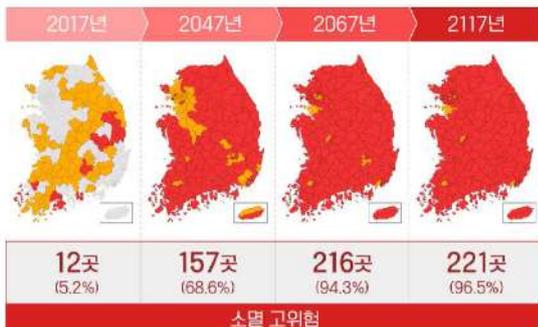
- 경제적 지위가 '선진국' 으로 변경(2021년)
 - ※ 수출·무역 규모 세계 6위('22)
- 문화 매력 국가로 도약
 - ※ 글로벌 매력도 8위, 국가브랜드 10위, 소프트 파워 12위('22)

2. 국내 이민 환경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 국민 생산연령인구 감소
 - 3,738만('20) → 3,381만('30) → 2,852만('40) 예측
- '21, 229개 시·군·구 중 108개(47.2%)
'47, 모든 시·군·구 소멸 위험(예상)

<소멸위험지역>



■ 이민자 수 증가, 구성 다변화

- 이민자 수 급증
 - 116만('08) → 224만('22) → **300만('30) 예상**
- 이민자 구성 다변화
 - 동포·결혼이민자 비중 ↓, 유학생·영주자격자 ↑

<이민자 수 비율 변화 추이 및 예상>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2. 국내 이민 환경

Ⅰ 인력부족 심화

-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30.2만명('13) → 56.3만명('23) 까지 증가
- 新산업·기술인력 수요 증가



Ⅱ 체류관리 강화 요구 증대

- 불법체류자 수 증가



- 체류질서 강화 요구 증가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2. 국내 이민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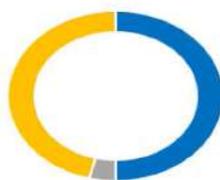
Ⅰ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 국내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 인식(매일경제, '23)

이민자 유입	매우 긍정적(5.2%), 대체로 긍정적(34.4%), 대체로 부정적(13.7%), 매우 부정적(4.3%)
최근 5년간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40.0%), 부정적으로 변화(22.7%)
이민자 유입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긍정적(49.9%), 부정적(32.5%) ※ 국민 56%가 이민 활성화에 동의
이민근로자의 기업활동 기여 정도	매우 기여(9.9%), 대체로 기여(61.3%)

< 이민 활성화에 대한 인식('22) >

우리나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활성화 해야한다.



■ 동의: 50% ■ 모름/무응답: 4% ■ 부동의: 46%

< 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22) >



■ 동의 ■ 모름 ■ 부동의

3. 시사점

Ⅰ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 활용 필요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충격을 완화·지연하는 보완책으로 활용
 - 국익과 모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지향
 - 지역기반 이민정책으로 전환 (중앙-지자체 협력 및 지자체 역량 강화)

Ⅰ 이민자 유입 및 관리체계 개편 필요

- 이민자의 유입-정주-통합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관리체계 구축
 - 인재 유치경쟁 대응 전략 마련, 인재 육성·유인 환경 조성
 - 해외 직도입보다 국내 체류자 활용 우선, 유연한 정주 경로 마련

22

3. 시사점

Ⅰ 질서있는 체류환경 조성 필요

-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질서있는 체류관리 체계 구축
 - 개방과 안전이 조화되는 국경관리 정책 추진
 - 사회질서 위해(危害) 요인 사전 차단, 불법체류 환경 억제

Ⅰ 사회통합의 중요성 증대

-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는 쌍방향 정책 추진
 - 미디어를 통한 이민의 순기능 홍보로 반(反)이민정서 해소 절실
 - 이민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 사회적 배제 방지

23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3. 시사점

■ 이민행정 인프라 강화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이민자 차별과 혐오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추진체계 강화** 필요

-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구(이민청) 신설**
- **부처간 협업 극대화**
- **디지털 기반 이민행정 구현, 이용자 편의성 증대**



24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4. 제4차 기본계획의 차별성

최초로 국민참여단(290명)을 구성,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로 반영

-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통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관리
-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과 엄정한 법 집행 병행
-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신설

	1~3차 기본계획(지난15년)	→	제4차 기본계획
유입 관점	• 노동력 충원	→	• 우리사회 구성원 • 전문·숙련인력 등 다변화
정착 방식	• 적극적 정주 유도 미흡	→	• 사회통합 • 정착·정주 유도
추진체계	• 단편적·분절적 • 중앙 중심	→	• 종합적·체계적 • 중앙-지방 협력

25

Ⅲ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Ⅲ.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





[특별강연]

문화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이주민 일자리와 현황)

수잔 샤키야

문화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이주민 일자리와 현황

발표자 : 수잔 샤키야

WFI 함께일하는재단



왜 외국인 근로자의 관점이 중요한가?

-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필수 노동력.
- 그러나 여전히 '숫자·인력'으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다양성(diversity) 관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을 바라본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국에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

- 한국 국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들
-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특정활동(E-7) 등 전문·기술 인력
- 유학(D-2) 후 구직(D-10)·취업으로 전환한 사람들 등
- 2024년 3월 E-9 근로자 근무 인원은 약 26만 명,
- E-9·H-2 합산 체류 인원은 약 42만 명 수준.

국적·언어·종교·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 하나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며 다양성을 만들어 가는 구성원.



어디에서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 E-9 근로자의 주요 국적은

-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EPS 제도 17개 나라하고 MOU 재결

· 2023년 말 기준 E-9 근로자 업종 분포

- 제조업 약 80%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다.

· 한국의 매력(외국인 입장)

- 본국보다 높은 임금,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 지급
- 한국에서의 경험이 미래 경력·이동성에 도움
- 법·제도가 갖춰진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기대
- K-콘텐츠, 한국어 학습 등 문화적 매력과 호기심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 언어 장벽

- 채용공고·근로계약서·안전교육 등 핵심 정보가 대부분 한국어

• 정보 접근의 어려움

- 믿을 수 있는 구직 정보 채널 부족 → 브로커·지인 의존

• 학력·경력의 미인정

- 통계에 따르면 E-9 근로자의 90% 이상이 자국에서 전문대·대학 이상 학력이지만, 한국에서는 단순노무 위주의 비전공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 비자·체류자격의 제약

- 비자에 따라 가능한 업종·직무가 제한, 체류기간 연장·변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짐

“능력이 있어도 언어와 제도의 벽 때문에 시작이 어렵습니다.”



일터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다양성의 그림자

- 장시간·고강도 노동: 생산량·공기 압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잦음.
- 임금·수당 문제: 연장·야간·휴일수당 누락,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 산업재해·안전 문제: 언어 문제로 안전교육 이해 부족, 위험 작업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경우.
- 차별과 관계의 문제: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별명, 비하 발언, 승진·배치에서의 차별.
- 체류 안정성 부족: 기본 3년, 재입국 제한 등으로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비자 구조.

다양성이 갈등·불평등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일터 밖의 삶: 한국 사회 속 외국인

- **주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월세 계약 거부, 과도한 보증금·서류 요구.
- **의료·행정 서비스:** 건강보험·의료비, 출입국·세금 등 제도 이해 어려움, 다국어 안내·통역 부족.
- **가족·자녀 교육:** 자녀의 학교 적응, 다문화 편견, 진로 정보 부족.
- **사회적 시선:** “외국인은 위험하다, 가난해서 왔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한 상처.
- 동시에 다양한 언어·음식·문화·종교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넓히고, 귀환 후 본국 지역 개발·창업 생태계와도 연결됨.

제도와 지원: 정부·민간의 역할

- **정부·공공제도**
 -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제도적으로 도입·관리
 - 노동부·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상담 서비스
- **민간·재단의 역할**
 - 함께일하는재단은 “일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재양성·선순환일자리·창업지원·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을 운영함.
 - 특히 ‘이주민 데이터플래닛’ 사업을 통해 이주민에게 한국어·직무교육, 재택 디지털 일자리 연계를 제공하며, 질 낮은 단순노동을 넘어서는 경로를 실험하고 있다.
- **국제협력**
 - KOICA의 K-HAMI(KOREA-HAPPY MIGRATION) 프로젝트의 일환인 RIN(RETURNEE INNOVATORS FOR NEPAL)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일한 네팔 청년들이 창업 교육-멘토링-부트캠프-인큐베이팅-경진 대회의 5단계를 거쳐 귀국 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로 성장하도록 도움.

“도움이 되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언어 장벽 때문에 실제 이용은 아직 쉽지 않습니다.”

과제와 제안: 다양성을 '자산'으로

- **정부**: 비자·체류 안정성 강화, 장기 체류·가족 동반 경로 확대,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 다국어 정보 제공 확대.
- **데이터 기반**·투명한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 고용·지역사회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 필요.
- **기업·현장**: 한국인·외국인에게 동일한 안전·복지 기준 적용, 다국어 근로계약서, 관리자대상 다문화·인권 교육.
- STEP UP·K-CORE(E-7-M) 등 중간기술 인력을 장기 육성·승급할 수 있는 경로 마련.
- **지역사회·시민**: 다양한 국적·언어·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인식, 학교·마을·직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협력.
- **좋은 사례**: 이주민 데이터플랫폼, KOICA RIN 프로그램 → 외국인 근로자를 양국 사회를 잇는 브리지이자 다양성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



다양성 위에 세워지는 한국 노동시장

-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불러온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노동·문화 변화를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다.
-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이 귀국 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 아이디어로 이어질 때, 한국의 이민·노동 정책은 상대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함.
-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한국이 어떤 다양성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 질문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 보자.





나마스테

“मेरो आत्माले हजुरको आत्मालाई सम्मान गर्द छ।”

(메로 앓트말레 허주러코 앓트마라이 섬만 걸더처)

“내 안에 있는 신(神)이 당신 안에 있는 신(神)을 존중합니다.”



[연구과제 발표]

AI 시대 이주민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 회복력 연구:

안성지역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AI 시대 이주민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 회복력 연구: 안성지역 이주민 AI 어노테이터(Annotator) 양성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2025. 11. 2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NUAC 시민사회프로그램

Content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분석틀

3. 연구 대상

4. 연구 방법

5. 분석 결과

- 참여 동기
- 교육 효과
- 교육간 연계성
- 직무 교육 및 실습/직무
- 직업전환에 대한 기대
- 네트워크 확장과 정체성
- 교육과정상 장애물
- 수용분석 지형도
- 연구 함의

6. 사업 의의

- 이주민 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7. 정책적 제언

- 정책 목표 제언
- 사업관련 정책과제
- 일자리 연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이주민 지원 정책 방향 및 제언

1. 연구 배경 및 목적

Algoracry, 지역 공동체의 문제

- 디지털 혁명과 정보지배체제(information regime)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의 운영인 알고크라시(Algoracry) 확산
- 지역사회의 분절과 불평등을 심화,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회복력(local resilience) 약화의 우려가 증가
-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와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개념을 연구 프레임으로 지역 이주민의 단순한 정착을 넘어 공존과 돌봄, 교육과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나아가 돌봄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AI 기술의 지역사회 친화적 활용’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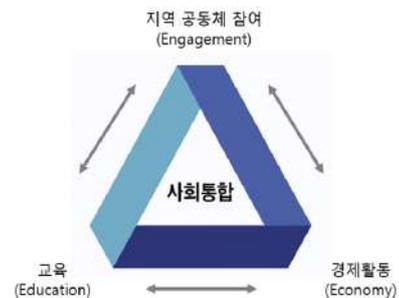
2. 연구 분석 틀

직무역량의 부족과 경제적, 돌봄 문제의 악순환

- 지역 이주민은 충분한 한국어 및 직무 역량을 갖추기 보다 조기 취업을 선택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 이로 인해 빈곤과 돌봄의 악순환이 지속
- 기존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비숙련 노동력의 한시적 수입, 관리에 초점
- 이주민은 대체가능한 '노동력', 지역사회로의 일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진입 어려움은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정착 전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정책 및 사업의 재원 및 이니셔티브(initiative)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교육-경제활동-지역공동체 참여의 선순환

- 이주민의 언어-직무 역량 강화 기회는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고
- 한국어 교육과 직무연계 교육이 결합→개인의 역량 향상뿐 아니라 자녀 돌봄-진로에도 긍정적 영향
- 안정적 취업(경제적 참여)과 자녀 교육 참여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공공선 기여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교육-경제활동-지역공동체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3. 연구 대상

이주민 데이터 플래닛'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통합

- 본 연구는 (주)SK하이닉스, 안성시, (재)함께일하는재단이 2025년 2월~9월까지 약 8개월간 공동으로 추진한 '이주민 데이터 플래닛' 프로그램의 '어노테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함
- 사업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실험적 모델로 단순 직업훈련을 넘어,
 - 1)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교육-경제활동-지역공동체 참여의 선순환을 촉진하며
 - 2) 이주민의 디지털 역량과 직업 전환 능력을 강화하고
 - 3) 관계성과 상호 돌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함
- '부족한 직무역량과-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지역공동체 통합 어려움'의 악순환을 디지털 직무역량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교육-경제활동-' 지역공동체 참여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4. 연구 방법

참여관찰

- 본 연구는 '어노테이터 양성 교육과정'의 한국어, 직무,실무 교육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함
- 참여관찰은 교육대상자 모집 과정(2~4월)과 교육일정(5~8월) 단계별 참여로 구분
- 교육대상자 모집과정: 비대면 인터뷰 심사 동영상 분석
 - 교육 대상자는 안성시에 거주하며 해당 직무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민자로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여 선발
- 교육 일정 단계별 참여: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한국어교육(평일반/주말반), 힐링캠프(아유회), 직무교육(평일반/주말반) 그리고 수료식 현장(평일반/주말반)에 대한 관찰을 진행
- 동영상 분석 및 참여일지 작성을 통해 현장을 생생하게 정리하였으며, 교육자, 수강자, 사업운영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관찰하였고, 특히 단계별 수업 중 수강자 간의 소통과 협력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함

4

4. 연구 방법

심층 면접조사 분석

- 심층 면접 대상자는 안성시의 이주민 분포와 교육 일정 참여자의 출신국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 15명으로 구성
- 면접 대상자 중 교육 참여변동의 발생으로 직무교육 전 추가 모집한 수강자 중 출신국을 고려해 면접자를 추가 섭외
- 최소 1회 이상 면접조사에 참여한 총 18명, 면접조사는 개인별로 3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면접조사 시기는 1) 한국어 교육, 2) 직무교육, 3) 실습 후로 나누어 진행함
-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취 자료집은 별책으로 제작(총 1287쪽)하여, 연구분석에 활용함
 - <자료집: AI 시대 이주민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 회복력 연구:안성지역 이주민 AI 어노테이터(Annotator) 양성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
- 조사를 통해 얻은 면접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주요 키워드 및 경향을 도출하였으며 수용분석 지형도(mapping)를 구성함

< 표 1 > 안성시 외국인 현황

동북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국적	인원수	국적	인원수	국적	인원수
전체	22,730	전체	1,076	전체	7,824
한국계중국인	5,135	베트남	286	한국계 중국인	3,120
우즈베키스탄	2,723	중국	207	한국계 러시아인	1,830
한국계러시아	1,902	한국계 중국인	173	우즈베키스탄	1,392
카자흐스탄	1,643	타이	74	카자흐스탄	888
중국	1,563	일본	66	미국	180

† 한국 국민의 배우자: F-2-1, F-6, F-5-2 자격 계류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
 † 외국국적동포는 F-4외에도 기타체류자격(H-2, F-5, F-1, 기타)으로 국내 체류 중

전체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F4+F5+F6
22,730 (100%)	7,824 (34.4)	1,562 (6.9)	883 (3.9)	10,269 (45.2)

† F4는 거소신고자에 한함

< 표 2 > 출신국가별 면접 조사 대상자

출신 국적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태국	최종
선정	6	3	2	3	1	1	15
변경	+2	0	-1	-1	0	-1	0
최종	8	3	1	2	1	0	15

5. 분석 결과: 참여동기

프로그램 참가자 별 다양한 동기와 이유들

- 참여자들은 다양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참여자들은 대체로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각 민족/국가 별 커뮤니티 리더급 이주민의 권유에 따라 호기심에 참여하게 됨
 -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봉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일단은 한 번 배워보라고, (중략) 그래서 그 분에게 소개를 받고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RT, p.366)
- 대기업 주도 사업의 신선함/AI를 사용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 "제가 지난번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 사업) 소개해 줬는데, 자기 아빠 (결혼이민자 남편)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라는 아주 대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경험을 한 줄만 써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JJ, p.186)
 - "그거 신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다 AI 시대 같아요. 그래서 SK 이렇게 기회 주셔서 우리 이렇게 공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DW p. 282)
- 일자리관련 역량 제고/재택 근무 및 업무 난이도에 대한 기대
 - "(이 일) 집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야기도 아직 어려서 그래서 공부해서 기대해요" (DW p. 294)
 - "(한국)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제가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한국에서 제가 또 말을 조금 못해서 회사에서 일하면 또 어려워져, 제가 하고 싶은 날 (일)하면, 혹시라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라도 야기 남으면 이렇게 일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또 몇 년 후에 다른 회사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MY, p. 295)
- 한국사회와 연결되는 계기/자녀 진로 모색의 계기
 -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지만 우리 아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컴퓨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 게임 안 하잖아요." (HW, p. 153)

5. 분석 결과: 교육효과

다양한 교육 효과, 의미 있는 시간 만들기(meaning-making)

- 사업은 한국어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재택실습으로 구분, 각각의 교육효과 보다는 데이터 라벨러로서의 역량을 획득을 중심으로 파악
- 참여자 인터뷰에 의하면 이 사업은 다양한 참여자에게 다양한 의미로 각인되었음
- 거의 모든 참여자가 일정 정도의 데이터 라벨링 역량과 함께 학습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시간(meaning-making)을 보냈음을 언급
- 교육효과는 개인별 역량/차별적 이주경로 효과/수업참여 성실성/안정적 직장경험의 효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임
- 향후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게 될 사람은 유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한국어 교육-한국어 실력 제고, 체계적 교육의 만족

"어떻게 생각해도 그냥 저한테는 (한국어교육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쓰는 말이 잘못 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RT, p.798)

실무경험 효과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컴퓨터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간단한 것부터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KN, p.941)

효과성 인식

"단순 반복이라 재미없을 수 있지만, 경우 원료 메시지를 받을 땐 성취감이 큼니다. 창문 투영도를 구분하거나 간판 종류를 표시하는 일이 단조롭긴 하지만 어느 순간 길을 가면서도

'아전, 세미네, 이견 사이드 간판이네' 하며 직업병처럼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HS, p.966)

"네 사실은... 의미가 있었어요. 네. 한국어 교육도, 한국어 연습도 받고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 스kill도 받고 어... 사람들과 만나서 재미있고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VC, 3차 인터뷰)

7

5. 분석 결과: 교육간 연계성

한국어 교육의 만족, 직무교육과의 연계성 보완 필요

-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직무교육 전에 2개월의 기간을 할애하여 진행한 한국어교육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표현
- 생활 속 한국어 유창성이 이미 높은 참여자에서 생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참여자들까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점은 성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기 (한국어교육)에서 배우는 단어, 이거 다튼 (한국어교재) 책에는 이런 단어 없어요." (MY, p.311)

"저는 우리가 왔을 때쯤은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 속에서 터득한 거고 그냥 공식적으로 토릭 내가 몇급이다. 그런 것은 없어요. 간혹조무사 시험 볼 때는 어려웠다. "거의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고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쓰는 것 (직문)은 약간 대화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헛갈리는 부분이 많고요. 알게 모르게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지요. 원래 '볼을 켜다'가 맞는데 저는 '키다'라고 했었거든요." (MU, pp.72-73)

- 다만, 한국어교육과 직무교육과의 연계성의 아쉬움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를 고려해야 함
→이후 정책 제언에서 반영

8

5. 분석 결과: 직무교육 및 실습·실무/직업 전환에 대한 기대

전반적 만족과 개인별 차이

-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직무교육 자체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음

“(직무)교육이... 아... 교육 설명이 쉬웠고 선생님도 잘하셨어요. 사실 괜찮아요. 저희가... 제가 필요한 실력을 다 배워서 괜찮아요.” (VC, 3차 인터뷰)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처음으로 아주 쉽게, 재미있고, 우리도 선생님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예뻐요. 어떻게 많이(은) 나라 갔다 왔대요. 저 말 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표 자리 해야 줘요. 음악을 조금 놓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해요. 우리 그냥 편하게 연습해요.” (EK 2차 인터뷰)

- 직무교육의 성과는 참여자들이 기존 보유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의 차이로 인해 개인별 차이가 존재
- 직무교육 과정의 중복문제, 눈높이 조절, 몰입과 재미,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택상황에의 적응문제 등 다양한 논의점이 도출

직업 전환 기대 유형 도출

- 참가자들은 사업 초반기 ‘데이터 라벨러’라는 일자리에 관심이 높았으며 한국어 교육과 직무교육을 포함한 3개월간의 집합교육에 뚜렷한 열의를 보임
- 직무교육 후 재택실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참여자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 고숙련-지관여: 재택 실습 수행은 소극적
 - 저숙련-참여 주저: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로 인한 수행의 어려움
 - 보완적 일자리 수용: 어노테이터 직무를 주 일자리의 보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수용함

9

5. 분석 결과: 네트워크 확장과 정체성

이주민에서 안성주민, 안성시민으로 정체성 확장

- 전반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이주민이면서도 교류 없이 자신의 생활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경향
- 본 사업을 통해 다른 배경과 생활 배경의 참여자들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으로 한 자리에 교육과 학습을 경험함
- 이러한 ‘새로움’은 참여자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짐

“내가 있는 생활권 밖에 모르니까 다른 이주민들의 생활은 잘 몰랐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생각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라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그 국민성이라고 그럴까,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주민들끼리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RT, p.1205)

“다른 나라 친구들이 없어요. if I had Korean friends, it would be nice (BK, p.438).”

- 사업 참여자들은 이미 지역사회 속에서의 이주민의 책무성 또는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음
- 일례로 한국 거주기간이 긴 60대 일본 출신 참여자는 10여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안성의 취약계층 대상의 자원봉사를 해 음

“우리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국인이라고 혜택만 받는 거 아니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그냥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10년 이상...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따라 하는 것뿐이에요” (RT, p.368)

- 해당 참여자는 사업에서 짙은 거주민과 만나며 이주민으로서의 동질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비침

“(수업에서) 짙은 이주민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저희도 짙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임마처럼 그냥... 잘 살았으면, 어디 도망가지 말고... 안성에서 살아도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알고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다르다... (RT, p.825)

10

5. 분석 결과: 네트워크 확장과 정체성

이주민에서 안성주민, 안성시민으로 정체성 확장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당사자이자 주체적 참여자'로서 지역사회, 정부, 기업의 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힘
- 안성지역에서 다문화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고, 이주민 리더로 성장해 온 중년 이주여성들은 이번 교육 참여를 통해 안성시민으로 지역사회 더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강해짐
- 나이가 안성에 뿌리를 내리고 싶고, 후배 이주민 여성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는 포부를 통해 안성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분명히 보임
- 특히 사업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그간 참여해 온 한국어교육이나 다문화행사가 아닌 "직무교육"이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함. 직무교육은 그동안 잘 '없었던' 기회
- 자신이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 수준 높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다수 확인됨 → 지역사회 정착의 가능성 제시

"(직업전환은 어렵지만 교육이) 사실은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어교육도 받고 필요한 데이터리벨링 스킬도 받고, 사람들과 만나서 재미있고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이주민) 서로 자기 현황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거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이주민들이 지금 시간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VC, p. 1268-1280)

"저 아가나 일 때문에 계속 안(못)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가족이) 다 이거 지지해요.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교육받으니 기분이 좋아요. 또 우리 중국 친구도 있어요. 다른 나라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YJ, p.688-690)

5. 분석 결과: 수용분석 지형도

3가지 기준: 참여도, 이해력, 응용력

< 표 6 > 1. 어노테이터 양성교육 수용분석 지형도 (3대 기준별)

구분	참여도 (Participation)	이해력 (Comprehension)	응용력 (Application)
기준	한국어/직무/실습 참여율, 의지	교육내용 이해, 연계과정 이해, 과제수행	디지털 리더러서, 직무이해, 직업전환 기대, 정책 제언
특징	한국어능력-직장여부-세대차가 특성함에 따라 차이 발생	학력, 커뮤니티 리더십, 학습환경에 따라 차이	디지털 역량, 사회참여 경험, 비판적 사고에 따라 높음/낮음
대표 사례	전업주부: 참여도 높음 직장인·주말근무자: 참여도 낮음	고학력 커뮤니티 리더: 이해력 높음 시니어: 이해력 중하	최근 이주한 젊은 세대: 고학력자: 응용력 높음 시니어: 응용력 중하

< 표 7 > 참여도, 이해력, 응용력 분포

수준	← Middle →								
	High			Middle			Low		
참여도	GW	HS	YC KM VC	MU PL EK RT	KN BK MY	JJ DW	YJ	YP	HW JP
이해력	JJ VC	YC BK	HS MY	GW EK DW	KM YJ	PL RT	MU	KN	YP
응용력	JJ	YC RT	HS MY	GW BK	KM EK	KN VC	MU DW	LP YJ	

- 인터뷰 분석을 종합으로 '참여-이해-응용'의 측면을 고려한 참여자 수용분석 지형도(mapping)를 구성
- 지형도의 세 축(참여-이해-응용)은 개인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교차하는 좌표 공간을 형성함

5. 분석 결과: 수용분석 지형도

개인적 요인/외적 요인

< 표 8 > 2. 개인적 요인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

요인	영향	구체적 사례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력·응용력 높음 / 참여도에 직접적 영향 X	한국어 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연계했을 경우 참여도 향상 가능
세대·이주시기	최근 이주 젊은 세대 = 적응력 높음	2010년대 이후 이주 → 직무실습 수월
학력	고학력자 = 이해력·응용력 높음	대학원 진학리더 역할 수행
직업·근무여건	안정적 직장·주말근무 = 참여도 저하	주말반 참여 도전, 중도포기 발생
공동체 소속	참여도 높음 / 이해·응용력은 낮음	종교 커뮤니티 소속 시니어
가족상황	자녀 연계 참여로 응용 가능	전업주부: 적극적 참여 / 청소년 자녀와 공유

< 표 9 > 3. 외적 요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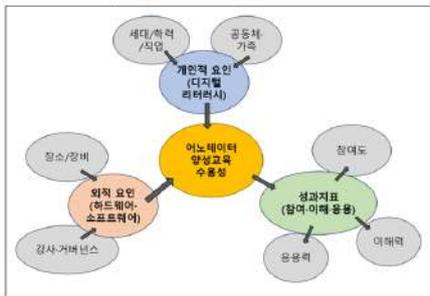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영향
하드웨어 (장소/장비)	평일반: 여성비전센터 (시설 우수) 주말반: 열악한 시설	학습 욕구 참여도에 차이 발생
소프트웨어 (강사/연계성)	강사 수준 불균형, 교육 연계성 부족, 커리큘럼/교재 부재	이해력·참여도 저하
제도적 요인(거버넌스)	이주민 단체·공무원·기관 협력 부족	대상자 모집 부실, 중도포기 증가
홍보/모집	온라인 커뮤니티·개인 네트워크 의존	충분한 설명 부재 → 단순 참여 → 중도포기 발생
정책적 맥락	안정시 중장기 이주민 지원 로드맵 부재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움

- 수용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요인은 디지털 리터러시, 언어 역량, 학습 동기, 정체성 전환, 돌봄 경험과 같은 내적 역량과 태도를 포함
- 개인적 요인은 참여자의 학습 몰입도, 이해력, 응용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안성에 거주하는 이주민에서 안성 시민으로"의 정체성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식적 기반
-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은 교육환경, 돌봄 부담, 지역사회 수용성, 노동시장 구조, 행정적 지원체계 등 외부 조건을 의미
- 외적 요인은 개인의 변화가 실제로 실천되고 지속될 수 있는 환경적 토대이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하는 맥락적 변수로 작용함

13

5. 분석 결과: 연구 지형도 및 연구의 함의

연구 지형도



개인적, 외적 요인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

- 개인의 역량이 성장하더라도 교육환경이나 사회적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지형도상 응용력의 확장이 제한됨
- 반대로, 안정적 학습 환경과 행정적·정서적 지원이 제공될 경우 참여자의 학습 동기와 시민적 실천력은 크게 강화됨

그 결과로서 참여자 응용, 참여, 이해의 차이에 따른 수용 지도의 분포가 나타남

연구 함의

이론적 차원

돌봄 민주주의와 기반론 공동체 이론을 미시적 학습과정에 적용, 지역 공동체 회복력의 사회적 기초를 재정의

실증적 차원

참여관찰과 면접조사로 얻은 질적 데이터를 개인·환경 요인별로 구조화, 시민성 전환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음

정책적 차원

이주민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 및 지역 통합 프로그램에서, 참여자의 수용성과 지속성을 예측의 실천적 진단 도구로 활용 가능

14

6. 사업 의의

이주민 노동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주민 AI 데이터플래닛' 사업은 이주민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 본 사업은 기업(SK하이닉스)이 재원을 지원, 전문적인 사회적 경제조직(함께일하는재단)이 총괄 운영, 지방정부(안성시)가 협력하는 민·관·사 파트너십
 - 특히 SK하이닉스는 단순 자원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회복력 창출 등에 기여를 목표로 이 사업을 기획
 - 이를 통해 지역 정부 단독 사업이 가지는 재정적·법률적 한계를 보완하고 이주민 참여자들의 기대를 끌어낼 수 있었음
 - 보다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기획과 운영이 가능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착 이주민에게 지속가능한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시도
-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이주민의 장기적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나아가 해당 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실제 직무 수행을 병행한 '유상 직무실습' 형태로 운영된 사례 → 그동안의 교육 중심·일방향형 사업과 뚜렷이 구분되는 **실질적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

이주민을 일시적인 노동력 수급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인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성장을 위한 **'환대적 진입 경로(Welcoming Entry Point)'**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

15

7. 정책적 제언

정책 목표: 실천 공동체 기반의 환대적 진입 경로 설계

- 이주민 학습 참여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학습 참여를 주저함 →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 모델 적용 필요
- 이주민이라는 동일한 배경은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조성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 초기 단계에서 CoP 중심의 환대적 진입 경로를 조성 하여 심리적 안전 공간을 구축 후 점진적 통합 추진
- 동질감 속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후 지역사회 통합으로 확장하는 통합 모델 구축

사업관련 정책과제

교육-실습 연계 강화

- '일률적 커리큘럼'과 '분절된 교육과정' 극복을 위해 참여자 개인의 역량 수준과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직무 연계형 성취도 기반 모듈화 교육(Job-Linked, Achievement-Based Modular Education)'** 모델을 제안
- 교육 효율성과 참여 동기 극대화를 목표로 1)교육 전 정밀진단→2)참여자별 필수 이수 모듈 지정→3)언어-직무 교육간 유기적 통합 단계로 구성

직무 중심의 통합 언어 교육(CLIL) 방식 적용

- '직무 맥락을 바탕으로 한 어휘 학습'을 위해, 한국어 교육-직무 교육 통합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제기
- **'내용 언어 통합 학습(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LIL)'** 필요-특정 '내용(직무 기술)'을 배우면서, 그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언어(한국어)'를 함께 교육
- 교육 초기 단계부터 실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시연+체험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도입

16

7. 정책적 제언

사업관련 정책과제

생애주기 및 젠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경로 설계

- 생애주기-젠더에 따른 각 집단의 학습 필요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경로와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
 - 1) 청년 남성: '커리어 전환 및 구축' 목표, 심화 기술을 교육하는 업스킬링(Up-skilling) 모듈
 - 2) 청년 여성: '돌봄과 일의 양립' 목표, 교육 시간 유연성 보장, 단기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 3) 중장년 여성: 생애 전환기 새로운 일 경험, 디지털 기초 교육 제공, 커뮤니티 리더 등의 사회적 역할 부여

참여자 유형별 맞춤형 사후관리 및 발전 전략

- 고숙련-저관여 집단: 다른 진로 계획으로 인해 데이터 라벨러로 일할 의향 낮음
→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또래 멘토' 또는 '보조 강사'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저숙련-참여 주저 집단: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인해 실제 일감 수행 주저
→ 디지털 리터러시 브릿징 프로그램, 공동 작업 공간에서 멘토의 도움으로 기초적인 프로젝트 수행
- 보완적 일자리 수용 집단: 대다수 참여자는 데이터 라벨링을 '보완적 일자리'로 간주
→ 특화 교육 및 일감 연계를 강화, 검수자 및 PM 양성 과정 개설 등 명확한 상향 이동 경로 제시, 고부가가치 전문화 경로를 설계

17

7.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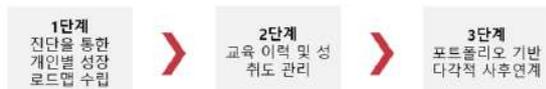
사업관련 정책과제

단계별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 강사의 다문화 역량 강화: 강사 역량은 사업의 성과에 핵심적, 강사 선발 시 문화적 겸손의 태도에 대한 반영 및 강사 사전교육을 통한 다문화 역량 강화
- 이주민 배경 강사 및 '또래 조력자(Peer Supporter)'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 중 우수 인력을 강사 또는 보조강사로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교실 내 '또래 조력자'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학습촉진 및 강사 부담을 경감

이주민 디지털 인재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참여자들은 참여도, 이해력, 응용력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임.
-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참여자의 역량과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맞춤으로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인재 포트폴리오(Migrant Digital Talent Portfolio)' 시스템의 구축을 제언



-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극복, 이주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육성

18

7. 정책적 제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단계별 성장 경로(Career Ladder)' 설계 및 제시

- 라벨러 이후 검수자→프로젝트 관리자→교육 강사의 구체적인 커리어 성장 경로 제시
- 단계별 성취도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과정을 정기 개설

공동 작업 공간(Co-working Space) '플래닛 허브' 운영

- 재택 실습 단계의 심리적 고립감,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물리적 거점
- 프로젝트 리더/선배 기수의 멘토링을 제공, 최신 프로젝트 정보공유→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연계 및 협동조합 모델 모색

- 참여자들 출신 언어 능력을 활용한 다국어 데이터 가공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의 발굴, 연계
- AI기반, 다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포착하여 참여자 전문성과 수입의 향상 도모
- 수료생 주축의 '데이터 라벨링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 직접 사업 주체로서 공동으로 일감을 수주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자립 모델 구축

19

7. 정책적 제언: 이주민 지원 정책 방향 및 제언

이주민 학습자의 파트너십 확대

- 정책 대상자에서 정책 파트너로의 전환: 이주민 학습자를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함
- 이주민 단체와 거버넌스 구축: 개별 이주민을 넘어,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비공식적 커뮤니티 및 자조모임과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정책의 현장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함
- 향후 정책 설계 시 비공식적 커뮤니티의 존재와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 커뮤니티의 리더를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파트너로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커뮤니티 특성과 차별화된 접근

- 각 출신국별 커뮤니티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이해→각각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 수립이 필요
- 고려인(러시아어권) 커뮤니티: 강한 '친족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 유통+의사결정. 가족 단위의 참여가 특징.
→가족단위 참여 인센티브/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이 효과적
- 일본인 커뮤니티: 동질적 구성 및 배경, 강한 유대감. 자발적 집단 학습에 강점을 보였음
→'공동 작업 공간'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중국인 커뮤니티: 커뮤니티 내 '내부적 다양성', 비공식적인 '또래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
→확밀적 전략대신 개인별 맞춤형 진로 상담과 '단계별 성장 경로' 제시, 비공식 네트워크의 공식화- 또래 멘토링 도입

20

7. 정책적 제언: 이주민 지원 정책 방향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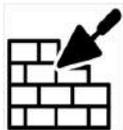
가족 및 세대 간 연결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미래 설계 지원

- 배우자 및 가족 대상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본 사업의 야유회와 같은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정례화
→나아가 참여자의 배우자들을 공식적 초청하여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
- '주니어 데이터 플랫폼' 워크숍 및 온라인 학습 지원 제언: 자녀의 교육, 생활지도,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부모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 나아가 자녀 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확보를 위함
- 미숙련 노동의 대물림 방지와 사회적 이동성 확보: '강력한 현대'에 기반한 교육적 개입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숙련 기술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현대적 진입 경로'를 제공해야 함
- '주니어 데이터 플랫폼' 워크숍 및 온라인 학습 지원 제언: 자녀 교육 연계 아이디어를 구체화. 주말, 방학 기간에 참여자의 청소년 자녀(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데이터 라벨러' 직업 체험 캠프를 운영할 것을 제언

21

7. 정책적 제언: 이주민 지원 정책 방향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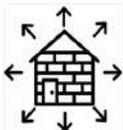
중장기 전략: 이주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3단계 생태계 구축



1단계: 기반구축 (Foundation)-현대적 전문성 교육 모델의 정립(1-2년)

직무 연계형 성취도 기반 모듈화 교육' 및 '인재 포트폴리오' 시스템 안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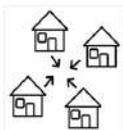
핵심 과제: ① 실무 연계 교육의 강화, ② 맞춤형 디지털 자원의 체계화



2단계: 생태계 확장 (Expansion) - '성장'과 '연대'의 플랫폼 구축 (3~4년)

교육 수요생의 경제적 성과의 산출, 사회적 연대의 플랫폼(공동 작업 공간 등)을 구축 단계

핵심 과제: ③ 공정한 보상 구조와 성장 경로 제시, ④ 파트너십의 확장, ⑤ 커뮤니티 특성을 반영한 포용적 운영



3단계: 정책 통합 (Integration) - '시혜'를 넘어 '미래 투자'로의 인식 전환 (5년 이후)

사업 모델을 안성시의 공식적인 이주민 지원 정책 및 평생 교육 정책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하는 단계

핵심 과제: ⑥ 정책 인식의 전환

22



|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NUAC
시민사회프로그램

MEMO

A large, empty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2025

이주민 시 어노테이터 미래 Symposium

2025 이주민 시 어노테이터 미래 Symposium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SK
하이닉스

 WU
함께일하는재단

